

《채림: 옷, 삶의 한가운데》



〈대지〉

2021

목판에 옷칠, 삼베

60x70cm

전시제목 : 《채림: 옷, 삶의 한가운데》

전시기간 : 2021년 5월 14일(금) - 2021년 6월 13일(일)

전시장소 : 학교재 본관

출 품 작 : 회화 144점

문 의 : 02-720-1524~6

담 당

우정우 [wcu@hakgojae.com](mailto:wcw@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10514-20210613_채림, 옷, 삶의 한가운데

1. 전시 개요

학교재는 2021년 5월 14일(금)부터 6월 13일(일)까지 채림(b. 1963, 서울) 개인전 《옷, 삶의 한가운데》를 연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전통을 재해석하여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작가를 조명하는 전시다. 채림은 옷칠에 기반한 조형적 실험을 전개한다. 보석 세공 장인들과 협업하여 순금, 순은, 도금, 도은, 진주, 자개, 보석 등 여러 귀금속을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단순한 기술 간 결합을 넘어 전통과 현대를 잇는 화폭이 구성된다.

채림은 2000년 보석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12월 학교재에서 연 개인전을 기점으로, 현대미술 작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지〉, 〈삶의 한가운데〉 등 새로운 연작을 선보인다. 옷칠의 한 기법인 '지태칠(紙胎漆)'을 변형한 표현 방식을 볼 수 있다. 채림의 작업은 전통 기법에서 출발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이 전시를 통하여 그 과정과 결과물을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다.

2. 전시 주제

전통 안에서 동시대의 자유로움을 찾다

동시대 미술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새로움'이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곧 옛 것이 되기 마련이다. 세상은 쉽게 무더진다. 채림은 이 무더짐 속에서 또 다른 자극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것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기를 제안한다. 옷칠은 예전부터 우리의 삶에 녹아있던 전통 기법이다. 하지만 합성수지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공예의 한 분야로서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채림은 이러한 옷칠 안에서 동시대성을 찾는다.

채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로운 도전과 실험"이다. 온도와 습도에 변화를 주어 옷의 다양한 질감 표현을 발견한다. 농담을 조절하여 그에 맞는 표현 방식을 찾는다. 옷칠이 때로는 파스텔, 혹은 수채화, 때로는 유화처럼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옷의 윤기가 새 기법 안에서 또 다른 빛을 띤다. 재료의 점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 점묘법을 구사할 때도 있다. 옷칠의 특성을 극복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한다. 까다롭고 복잡한 옷칠 기법을 재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채림의 시도는 아직도 많은 다양성과 실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랜 전통의 견고한 규칙 안에서 표현의 자유로움을 찾는다. 이 과정이 고스란히 화폭에 담긴다.

삶의 한가운데, 조용한 울림

옷칠은 "피어난다". 처음에는 어두웠던 색상이 점차 밝아지면서 스스로의 빛을 발한다. 채림은 이러한 옷칠의 변화에서 삶의 치유와 회복을 본다. 다양한 색이 복잡하게 얽혀 어우러질 것 같지 않지만, 결국에는 저마다의 색을 환하게 드러내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작업은 채림에게 내면과의 만남이 된다. 여행을 하거나, 일상 속에서 봤던 기억 속 풍경들이 작품 안에 자연스럽게 투영된다. 옷칠, 한지, 삼베, 자개 등 자연적인 소재가 이런 풍경들을 서정적인 감성을 자아낸다. 작품은 완성형으로 존재하지만 끊임없이 무의식 속 익숙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친숙한 향수(鄉愁)는 관객에게 말을 건다. 과거로부터 비롯되었을 이 목소리는 삶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현재 진행형의 조용한 울림이다.

3. 작품 소개



〈대지〉

2021

목판에 옷칠, 삼베, 한지

122x162cm

‘지태칠’은 종이로 만든 오브제 표면에 옷칠을 더해 마감하는 전통 옷칠 기법이다. 이를 재해석한 새로운 방식이 〈대지〉 연작에 적용되었다. 삼베 위에 옷칠과 한지를 덧입히는 과정을 반복한다. 한지를 찢고 부스러뜨리고 밀고 두드리기도 한다. 옷칠 안에서 한지가 특유의 거친 듯 부드러운 질감을 내준다. 한국 특유의 정서가 발산된다. 견고함 속에서 작가가 획득한 채색, 질감, 형태의 자유로움을 살펴볼 수 있다.



〈삶의 한가운데〉

2021

목판에 옷칠, 삼베

60x70cm

〈멀리에서〉(20x20cm), 〈삶의 한가운데〉(20x20cm)(60x70) 연작은 2019년 시작된 프로젝트 “아리랑 칸타빌레”의 일환으로 진행된 작품이다. 제주를 시작으로 여수 통영 등 우리나라의 풍경을 담은 프로젝트다. 채림은 이 여정을 통해 계속해서 다양한 옷의 해석을 모색할 예정이다. 옷칠, 한지, 삼베, 자개 등 전통적인 자연 재료가 우리의 추억을 환기한다. 작품은 독립적이면서도 거대한 파노라마를 이룬다. 한 폭의 서정적 판타지를 경험하게 한다.



〈수화〉

2018

목판에 옷칠, 삼베,
자개, 진주, 22K 금도금 은

48x48cm

채림의 이름에는 수풀 림(林)이 들어간다. 나무, 숲, 풍경 등 자연물을 작품에 담는 과정 안에서 자신을 담는다. 채림은 〈수화〉 연작에 살아 숨 쉬는 사계절의 숲을 담았다. 작가의 사계절이 담긴 작품 안에서 보편적인 우리 인생의 사계절이 펼쳐진다. 하지만 나무가 말을 걸어온 순간, 독자적인 내면의 대화가 시작된다. 이는 작품 스스로가 곧 언어가 되는 순간이다. 조용한 가운데 움직임이 불러일으키는 정중동(靜中動)의 자태가 피어난다.

4. 작가 소개

보석 디자인은 ‘입을 수 있는 예술’ 분야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장식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사람의 몸에 지니지 않으면 금고에 들어가고는 한다. 이 점이 보석 디자이너였던 채림을 안타깝게 하였다. 그런 마음이 “옷칠 회화와 보석 세공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는 지금의 그의 작품에 이르게 했다.

옷칠은 채림에게 운명과도 같다. 불문학을 공부하고, 보석 디자인을 하며 쌓은 시간이 옷칠 작업을 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옷칠이 그의 '삶의 한 가운데'를 지난다.

채림은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 프린스턴 갤러리 (뉴저지, 미국), 갤러리 BDMC (파리) 등 해외 유명 갤러리에서 연달아 개인전을 가졌다. 사치갤러리 (런던), 그랑팔레 (파리), 피어 94 (뉴욕) 등 국내외 우수 기관에서 열린 단체전 및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아트 어워드 (피렌체, 이탈리아), 아트엑스포 뉴욕 (뉴욕), 국제문화유산박람회 (카루젤 뒤 루브르, 파리), 제 30 회 일본 인터내셔널 펠 디자인 콘테스트 (미키모토, 도쿄), 아시아 패시 어워드 (JDMI 시그니티, 홍콩) 등에서 다수의 상을 받았다.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체 시 글쓴이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학고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옷칠로 쓴 서정시

이용우 | 미술이론가, 상하이대학교 교수

예술가 채림의 옷칠 작업이 현대미술로 거듭나는 데는 지난한 끈기와 연구의 과정이 동원됐다. 이러한 과정은 작품의 형식적 변화나 옷 기술의 진화만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옷칠이 기능적 예술에서 탈 기능적 담론의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장르라는 사실을 작품으로 입증해야 하고, 현대미술의 복잡한 개념적 정의와 울타리를 넘나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의 존재 이론들은 기능적 완성도보다는 프로세스 중심의 실험정신과 시대정신, 작품이 가지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자주성을 묻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채림의 '옷 그림'은 전통의 뿌리를 튼튼하게 가진, 그러면서 더욱 새롭고 다양한 진화 과정에 있다. 그의 예술은 세련된 옷을 다루는 기술, 그리고 보석 디자인 기술의 완성도가 뒷받침하는 공예적 전통과, 그것을 다시 현대미술과 만나게 하는 적응력이 매우 주목을 끈다. 현대미술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개념과 물질, 비물질, 행위, 아방가르드의 전복적 가치들이 연대하여 만들어낸 자극적인 퓨전 요리라면 채림의 예술은 옷칠이 빚어낸 감칠맛 나는 시적, 감성적 풍경화이다.

채림의 예술을 공예적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현대미술이라는 술어가 적절한 것인지는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현대미술로서의 옷칠 작업을 보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공예를 진흥 시키기 위한 각 직능별, 단체별 노력이 돋보이는 상황에서 공예를 단순히 전통예술이나

상품으로 정의하는 협소한 시각에 대한 적극적 제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제안이 담고 있는 신선한 야망은 기능적으로 중요한 전통예술이 거꾸로 탈 기능적 현대미술과 만났을 때 답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채림의 '옷 회화'는 20세기 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유화(oil painting)의 마티에르(matière) 효과를 연상시킨다. 캔버스에 대한 심미적 해석으로 불리는 마티에르 작업은 가령 평면 회화의 주 재료로 쓰이는 캔버스나 종이, 나무 등이 재질에 따라 표면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유화는 기름 물감의 성질상 두껍거나 얇게 칠할 수 있고, 붓의 터치를 극대화시켜 독특한 질감(質感)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마티에르란 재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귀결로 볼 수 있으며,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 미적 완성도가 달라진다. 채림의 옷 회화에 나타난 평면의 질감은 옷의 기능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그 두께나 깊이를 조절함으로써 만들어내는 다양하고 세련된 미감이다. 이 독특한 표면 효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풍경을 연출하고 색채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서정적 감수성을 드러낸다.

나무에 여러 번 옷칠을 반복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표면은 독특한 색감과 광택, 윤기를 드러낸다. 이러한 효과는 캔버스에 붓을 사용한 효과보다 더 선명하고 자극적이다. 캔버스의 마티에르 효과는 유화물감의 액체 성분에서 발산하는 미완성의 색채감이 아름답지만 옷칠에서 생산된 모호한 윤기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을 연상시키는 몽환적이고 자극적인 회화성이 있다. 녹색이나 짙은 푸른색, 붉은 색, 검정색을 타고 상승하는 듯한 곡선들은 흡사 초서체로 휘갈겨 쓴 서예의 상승기류를 보는 듯하다.

채림은 나전칠기 과정인 옷칠, 생칠, 흑칠 등의 기술적 적용을 회화적 표면 만들기에 대입할 경우 그 표면은 다양한 신비로운 결과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채림의 입체적 평면, 또는 조각적 회화로 묘사될 수 있는 복합적 양식들은 이러한 기술의 완성도가 뒷받침하는 결과물로서 관객에게 신뢰를 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날렵하고 세련된 세기들이 기능적이고 서정적인 단면을 넘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확산된 주제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나타날지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채림은 옷칠에서 획득한 회화적 자신감과 보석디자이너로서 닦은 기능성을 바탕으로 입체 작품에 도전했다. 세공 기술의 한계를 옷칠로 확장시킨 것처럼, 보석디자인의 장점이자 약점인 장식성을 제어하면서 과거 부조나 판넬에서 창조한 서정적이고 유연한 감성의 입체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시도가 농익어 자주적 질감과 미적 동기를 찾아갈 때가 되면 채림의 예술은 드디어 하이브리드(hybrid) 미학이라는 현대미술의 다채로운 옷을 입고 재도약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혼성형 형식의 예술을 대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하이브리드는 그 개념이나 서술형식에서 거침없는 미학적 반란들을 수용하는,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모험들이 교차하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이다. 아방가르드의 혁명적이고 전복적 정신은 현대미술의 시작에서부터 그 배후에 오랜 동안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 미술에 대한 환호, 횡포는 오늘날 다양한 담론들은 풍성하게 하는 모체다.

채림의 아름다운 옷칠처럼, 오늘날 미술대학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애석한 기예들은 현대미술의 개념적 논제나 담론에도 잘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인 관심이 확장되어 있는 분야, 예를 들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ć)처럼 자신의 몸을 뛰어나게, 익숙하게 다루는 퍼포먼스 예술의 경우는 다르다. 신체가 전통 매체보다 훨씬 사회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표현의 민감성, 확장성 때문이다. 시각예술이란 예술가들의 아이디어가 일정한 재료, 기법과 만나 합성된 것이라는 전통을 의심하고 심문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개념미술이다. 말하자면 캔버스에 일정 비율의 물감을 바른 평평한 물질(회화)이 예술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역사적, 미학적, 경제적 의미를 갖게 되는 아이러니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오랜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옷 기술, 칠기 예술의 렌즈를 통해 사물을 다시 볼 것을 권유하는 채림의 예술 언어는 아름다운 귀환이다.

채림은 보석이나 장신구들처럼 물질이 기능적으로 바뀌는 순간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를 갖게 되는 현상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 말하자면 기능이 없는 '물질'과 기능이 입혀진 '비물질' 사이의 아름다움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 그리고 다시 기능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 사이의 감성의 차이를 세밀하게 표현한다. 그러므로 기능이란 라벨이며, 이 사회적 라벨이 형성해 온 편견의 무게를 버리도록 유도하는 상징시들을 옷칠이라는 확장된 예술의 그릇에 담아 놓는다. 말하자면 각기 다른 개체들의 아름다운 색채와 도형들이 뿜어내는 생명현상이 목격되도록 순수한 예술의 옷을 다시 입히는 것이다.

6. 작가 약력

채림

1963 서울 출생
1986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1989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2009 국제보석감정사 취득
현 프랑스 조형예술 저작권협회 회원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중

주요 개인전

- 2021** **웃, 삶의 한가운데, 학고재, 서울**
 춤추는 버드나무, 스페이스 776, 뉴욕
 대지, 이대서울병원 아트큐브 & 아트웰니스존, 서울
- 2019 멀리에서, 학고재청담, 서울
- 2017 숲의 사색, 학고재, 서울
 숲의 노래, 에이블 파인아트 갤러리, 뉴욕
 숲에서 나를 만나다, 라우갤러리, 경주
- 2016 공명, 갤러리 BDMC, 파리
 프린스턴 갤러리, 프린스턴, 미국

주요 단체전

- 2021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 2020 아트 부산 & 디자인, 벅스코, 부산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아트3F, 파리엑스포, 파리
- 2019 한국국제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나무, 올곧음 깊음 아름다움, 경운박물관, 서울
 제3회 국제 비엔날레 드 아르테 바르셀로나, 유럽 모던 아트 뮤지엄, 바르셀로나, 스페인
 타이베이 당다이, 난강 전시 센터, 타이베이
- 2018 스킵 마이애미 아트페어, 마이애미 비치, 미국
 아쿠아 아트 페어, 아쿠아호텔, 마이애미 비치, 미국
 아트룸스 페어 서울, 리베라 호텔, 서울
 아트 타이베이,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타이베이
 텍사스 컨템포러리, 조지 브라운 컨벤션센터, 휴스턴, 미국
 아트 산타 페, 산타 페 커뮤니티 컨벤션센터, 산타 페, 미국
 칸 비엔날레, 칸 팰리스, 칸, 프랑스
 뉴욕 컨텍스트 아트페어, 뉴욕
 아트엑스포 뉴욕, 피어 94, 뉴욕
 베네치아 아트 엑스포, 스쿠올라 그란데 델라 미세리코르디아, 베니스, 이탈리아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 2018 평창올림픽기념전시회 「칠예2인전」, 주일 한국문화원, 도쿄
- 아트 스테이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 센터, 싱가포르
- 2017 아트 가오슝, 보얼예술특구, 가오슝, 대만

- 위드아트페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서울
아트 타이베이,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타이베이
한국국제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스타트 아트페어, 사치갤러리, 런던
아트 제주, 하얏트 리젠시, 제주
아트 부산, 벡스코, 부산
아트엑스포 뉴욕, 피어 94, 뉴욕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살롱 데 앙데팡당, 그랑팔레, 파리
- 2016 프랑스-독일 박람회, 쿤스트라움99, 쾰른, 독일
살롱 아트 쇼핑, 카루젤 뒤 루브르, 파리
아트3F, 브뤼셀 엑스포, 브뤼셀
파리와 런던의 따라지 인생, 5th 베이스 갤러리, 런던
아트3F, 툴루즈 전시공원, 툴루즈, 프랑스
파리 - 뉴욕, 스페이스 인 아트, 뉴욕
아트엑스포 뉴욕, 피어 94, 뉴욕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한·인 현대미술 - 한국의 열정, 인도를 만나다, 인도문화원, 뉴델리, 인도,
- 2015 살롱 데 앙데팡당, 그랑팔레, 파리
국제문화유산박람회, 카루젤 뒤 루브르, 파리
DK 2015 - 코리아 주얼리 디자인, 킨텍스, 고양
한·중 문화예술제 - 영웅 안중근, 하얼빈의 꽃으로 피다, 하얼빈, 중국
- 2014 살롱 데 앙데팡당, 그랑팔레, 파리
필라 코리아 세계우표전시회, 코엑스, 서울
- 2013 청와대사랑채 주얼리 문화전, 청와대사랑채, 서울
세계패션페어, 콘래드, 서울
- 2012 청와대사랑채 주얼리 문화전, 청와대사랑채, 서울
- 2011 세계패션대상 - 포멀 스타일 갈라, 그랜드하얏트, 서울
- 2010 G20 영부인을 위한 포멀 스타일 갈라, 그랜드하얏트, 서울
- 2009 서울 디자인 올림픽 - 베스트 오브 베스트 주얼리 디자인, 잠실종합운동장, 서울
한국금속공예 현대작가 100인전, 갤러리 각, 서울
- 2008 포멀스타일 포럼 (한국포멀협회 주최), 호텔리츠칼튼, 서울
- 2007 베라 왕 & 로베르또와 주얼리 패션쇼 (까사 & 동아TV 주최), 한국해비타트, 서울
- 2006~16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원전

수상

- 2021 금상, 특선, 입선, 제41회 국제현대미술대전, 한국서화협회, 서울
- 2018 감독상, 아트엑스포 뉴욕, 뉴욕
레오나르도 다 빈치 아트 어워드, 보르게세 팔레스, 피렌체, 이탈리아
- 2017 솔로 어워드, 아트엑스포 뉴욕, 뉴욕
- 2016 금상, 굿디자인 어워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대상, 제15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서울
- 2015 유진 폰트네 상, 국제문화유산박람회 – 국제앙드로말로협회, 카루젤 뒤 루브르, 파리
주얼리 부문 선정, 굿디자인 어워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금상 (중소기업청장상), 제14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서울
- 2014 금상 (중소기업청장상), 제13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서울
- 2013 입선, 제5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행정자치부, 서울
주얼리 부문 선정, 굿디자인 어워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입선, 제3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디자인부문, 한국미술협회, 서울
특선, 제9회 국제귀금속장신구대전,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서울
- 2009 입선, 제44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 2008 특선, 제2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디자인부문, 한국미술협회, 서울
특선, 제13회 경기디자인전람회, 코리아디자인센터, 성남
금상 (특허청장상), 제7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서울
- 2005 특별상, 제30회 일본 인터내셔널 펄 디자인 콘테스트, 미키모토, 도쿄
입선, 제30회 일본 인터내셔널 펄 디자인 콘테스트, 미키모토, 도쿄
- 2001 아시안 패시트 어워드 워너, JDMI 시그니티, 홍콩
동상, 제28회 일본 인터내셔널 펄 디자인 콘테스트, 미키모토, 도쿄